

1. HTML5이 탄생하게 된 배경
2. 기존 HTML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로운 점
3. 국내외의 HTML5 적용현황 비교
4. HTML5지원브라우저
5. HTML과 CSS

HTML5이 탄생하게 된 배경

HTML5가 왜 탄생했는지를 알기 이전에 HTML5로 넘어오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DOCTYPE html> 태그와 같이 doc type선언이 굉장히 간단해졌다. 이전 버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Frameset//EN" "http://www.w3.org/TR/html4/frameset.dtd">
```

인코딩을 선언, 코드작성방법, 새롭게 추가 된 element, 속성등이 있다. 특히 CSS로 처리가 되는 element의 경우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등 기존에 다루기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미디어 element의 API를 지원함으로써 html4보다 더 많은 내용을 html 문서에 담을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

원래는 XHTML 이라는 다른 형태의 HTML이 개발되어서 개발자들에게 이것을 강요했지만 apple, mozilla, opera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HTML을 더 개선시켰고 지금의 html5가 등장하였다.

2008년 1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4년 10월 28일 확정 되었다니 의외로 그 역사가 길지 않다고 봐도 될것 같다.

나무위키에서는 플래시, 실버나이트 등의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웹표준이 생겨나도 모바일을 포함한 웹에 접근하는 기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함에 h/w를 고려할 이유가 줄어들었기에 더 적합해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HTML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로운 점

기존 HTML의 경우 형식으로 태그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명시해야 했지만 로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졌다. 배경에서 살펴본것 처럼 일단 코드는 간단해졌고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워졌으며 레이아웃, 디자인, 미디어에 관련된 태그가 많이 추가되었다.

예전이야 기기나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아 디자인이나 미디어를 포함하면 기다리다 나가버렸을테지만 지금은 그런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 페이지에 디자인을 포함해 더욱 풍부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국내외의 HTML5 적용현황 비교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등 IT기술에 빠르게 대처해야하는 분야는 이 HTML5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의 사이트를 보면 아직도 플래시가 도배되어있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플러그인으로 도배 된 사이트 들이 많다. IE나 윈도우가 없이는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 없는 사이트가 많은것을 보면 아직도 국내 웹은 HTML5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진 못하다.

반면의 해외 사이트는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든 관계없이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HTML5 지원 브라우저

HTML5를 지원한다 안한다로 구분하기 보단 <http://html5test.com/> 라는 사이트에서 HTML5를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는지를 점수화한 표가 있다. 만점은 550점

OVERVIEW

	Chrome	Firefox	Internet Explorer	Opera	Safari
Upcoming			Edge 13 453		9.0 400
Current	44 526	40 467	Edge 402	31 525	8.0 396
Older	42 523	37 449	11 336	29 519	7.0 352
	40 511	35 449	10 297	26 497	6.0 326
	36 486	28 416	9 113	12.10 338	5.1 250
	28 433	18 371	8 33		

크롬 526, 파이어폭스 467, IE 402, 오페라 525, 사파리 396 이것이 현재 점수라고 한다.

모든 브라우저서 HTML5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며, 아직 550으로 만점이 나온 브라우저는 없다고 한다. 요즘 맥스톤이라 하여 중국에서 나온 브라우저가 있는데 ActiveX도 사용이 가능한데 IE의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Namu Wiki homepage. The title is '나무위키:대문'. Below the title, there is a notice about the site's purpose and a list of links. A table titled '나무위키' lists various services and their status. At the bottom, there are more notices and a contact link.

나무위키	
규정	임시 관리규칙 · 합의 / 커뮤니티 · 관행차별 · 관습행위
도움말	FAQ · 가이드 · 문서 작성 도움말 · 편집 도움말 · 토론 도움말 · 문서 관리 요청 도움말
기능	게시판 · 이슈 브래커 · 연인 · 통계 · DB 덤프 · 연습장 · 나무위키 프로젝트

예전에 비하면 디자인이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한다. 크롬보다도 HTML5 점수가 높다고 하며 아직 한국어가 완벽히 지원되는 브라우저는 아니라고 한다. 만약 한국어가 제대로 지원되기 시작하면 다른 브라우저보다 훨씬 인기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IE가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반가운 소식 뒤에 웹표준도 지키면서 ActiveX까지 사용이 가능한 브라우저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HTML과 CSS

HTML과 CSS는 오늘 수업에선 HTML이 구조를 만들면 CSS가 그것을 꾸며주는 것이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거 같다. CSS없는 HTML은 무슨 구조인지 보이긴 하지만 정말 디자인이라곤 최악의 이상한 문서이다. HTML문서를 작성할때 CSS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필수인듯 하다(왜냐하면 몇몇 속성들이 누락되어 CSS로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